

걱정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나의 슬픔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행복이 남아 있을 거라고. 물론 정조와 사랑은 이런 씩씩한 기쁨을 즐기는 법이지. 하지만 비르지니는 이제 없네. 그러니 자네에게 남은 것은 자네 다음으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그녀의 어머니와 자네의 어머니일세. 자네가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곧 못자리를 쓰게 생긴 사람들이지. 비르지니 자신도 그리 했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을 돕는 것을 자네의 낙으로 삼아 보게나. 이보게, 신행이란 덕성에서 비롯한 행복일세. 지구상에 그보다 더 든든하고 더 위대한 행복은 없지. 쾌락, 휴식, 희열, 풍요, 영광 같은 것들을 도모하는 일은 나그네처럼 덧없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부를 향해 내디딘 한 걸음이 우리 모두를 심연으로, 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어떻게 내몰았는지 보시게나. 자네는 그 일에 반대했었지,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비르지니의 여정이 그녀 자신의 행복이자 자네의 행복으로 끝나라라는 것을 누가 의심이라도 했겠는가? 돈 많고 나이 든 한 친척 어른의 강권, 현명하다는 한 총독의 조언, 온 식민지의 박수갈채, 한 성직자의 종용과 그 권위가 비르지니의 불행한 결말을 초래했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주도면밀함에 속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들을 믿지 않았더라면, 기만적인 세상이 말하는 견해와 기대 따위